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장성군, 농업인이 알아야 할 감염병 예방방법 교육 실시

농사철 기승 부리는 진드기 매개 질환 관련



장성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야외 활동이 잦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유용한 팁을 알렸다.

장성군은 9일 '2018년 품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이 한창인 농업인회관에서 농사철 기승 부리는 진드기 매개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예방 교육은 봄철 야외에서 농사 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들이 진드기로 인해 감염병을 얻는 사례

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농업인 교육을 진행하는 농업기술센터와 감염질환을 관리하는 보건소가 협력해 진행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중 쯤쯤기류는 털진드기류,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작은소피참진드기로 매개되는 감염병으로,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인 4월부터 11월에 대부분 발생한다.

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가 출현시기인 3월부터 주의

를 요하나 최근에는 연중 발생하는 추세이며, 진드기에 물리면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두통,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나 고령의 기저질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쯤쯤기류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된 환자 사이에서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건소는 진드기가 창궐하는 시기에 야외에서 농사 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날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진드기 매개 질환의 증상과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도 함께 전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최고의 예방법이며, 의심 증상이 있을 시는 장성군보건소로 문의 후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2019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신규·계속사업 국비 예산확보 총력전 돌입

함평군은 안병호 군수 주재로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고지원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국고지원 건의 현안사업 규모는 모두 96건 4,709억 2,700만원으로 신규사업 61건 2,326억 8,000만원, 계속사업 35건 2,382억 4,700만원이다.

신규사업으로는 ▲함평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함평군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추가 조성사업 ▲육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 ▲엑스포공원 아간경관 조성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 2,326억 8,000만원 중 국비 소요액 1,235억 5,000만원을, 계속사업은 ▲함평 축산특화 투자선도지구 조성 ▲함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보 구계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천사원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 2,382억 4,700만원 중 국비 소요액 1,692억 4,700만원을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군은 이 중에서 2019년도 국비 지원 건의액 838억 8,400만원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군수는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구례군,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통한 현장접수

오는 19일 오후 2시 섬진아트홀서 열려

구례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섬진아트홀에서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와 질의응답, 맞춤형 상담, 현장 접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관내 사업주 500여 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이다.

한편, 참석지에는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어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통

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연간근로소득(월 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내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설 연휴 주요 관광시설 정상 운영

제암산자연휴양림·울포해수욕장·비봉공룡공원 등



비봉공룡공원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 울포해수욕장, 비봉공룡공원 등 군 주요관광시설을 설 연휴동안 정상 운영한다.

제암산자연휴양림, 전남환경생태자연예비관리센터, 울포해수욕장, 비봉공룡공원은 연중무휴 운영하며, 한국차박물관과 붓재는 설 당일인 16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

지상 최고의 휴양지 제암산자연

휴양림은 숲속모험시설인 에코어드벤처와 전영짚라인, 무장에 테크로드 5.8km 더늘길이 있고, 전남권환경생태자연예비관리센터가 있어 연휴기간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휴양림은 15일부터 17일까지 입장료와 주차료가 무료이다.

연휴기간 피로에 지친 심신을 달

래줄 울포해수욕장은 지하 120m의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해수와 피부미용 및 건강에 좋은 보성 녹차를 테마로 사계절 각광받고 있다.

공룡관광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비봉공룡공원은 천연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중생대 백악기 비봉공룡화석지를 소재로 전국 최초 4D멀티미디어 쇼 공연과 움직이는 전시 연출, 공룡카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을 잇고 있다.

비봉공룡공원 주변에는 비봉미리나, 특립만 선소낙시공원 등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해양레저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다.

한국차박물관과 붓재는 보성의 역사와 문화, 예술, 변화되고 있는 차산업과 차문화를 보여줄 문화감성 휴식공간이다.

군은 이외에도 태백산맥박물관, 별교공룡조합, 흥암나철기념관, 방진관, 백민미술관 등도 연휴기간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했다.

한편, 보성군 관광시설 휴관일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설 명절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활동 전개

귀성객 대상 동강 만남의 광장서 홍보·상담서비스



고흥군은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맞춤형 귀농상담 서비스 지원, 대도시 현지 귀농·귀촌 유치 활동 전개, 도시민 초청 농촌문화체험 등 다양한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해 도시민 유치를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도시민이 고흥으로 귀농을 결심한 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농산물 생산, 농지확보 및 다양한 작물재배 적격지로 알려지면서 연 300명 이상이 귀농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2,300여 명의 도시민이 고흥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흥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 기간 중(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고흥을 찾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희망귀농 행복귀촌'의 슬로건을 내걸고 동강 만남의 광장에서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활동 전개와 귀농정책 상담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유치홍보 행사가 전국 각지의 향후회원들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고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급년에도 귀농인 800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귀농인의 집 운영, 도시민 초청 '농촌문화체험' 캠퍼어 행사 개최, 대도시 현지 박람회 참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경
- 규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